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대가 없어야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사찰에서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대신 절에서 하는 어린이·청소년 법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사진은 “어린이·청소년 법회”라고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법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수암 스님은 “지도자와 자모회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하는 정도다. 그밖에 교사 연수 및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문화공연 관람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지원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특별한 것은 어떤 것일까. ‘부처님 품에서 마음껏 뛰어 놀라’는 기



본 원칙 아래에서 잘 놀고 기본적인 기도문, 발원문 낭독 때에 잠시라도 집중할 수

있으면 된다. 수암 스님은 “바나나가 귀한 시절 법당에 가면 바나나가 있었는데 그때 ‘절에 가면 바나나 먹는다’는 생각을 했다”며 “어린이·청소년들이 절에 오면 ‘바나나’와 같은 특별한 기억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착안해 낸 것이 매일 사찰 순례 및 문화체험을 하는 ‘어린이 108 체험단’ 등도 기획하고 있다.

그밖에 단체복을 맞추거나 어린이법회 용 가방 등 작은 지원을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한다. 단체 티셔츠도 면이 아니라 기능성 티셔츠로 맞추고, 법회 용 가방을 만들 때도 최대한 고급스러운 것으로 맞춰주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화계사에서는 체험프로그램에 드는 대부분의 비용은 전액 사찰과 자모회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간혹 겨울 스키캠프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를 지원해 아이들이 돈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어린이·청소년 법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수암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하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될 때까지 불법에 인연을 맺고 있으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수암 스님은 “지도법사와 지도사, 자모회, 어린이·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불교적이면서도 고급화 된,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일이 가장 큰 화두”라고 덧붙였다. 수암 스님은 “화계사 어린이·청소년법회가 지금에 있기까지 모두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힘이고, 그들이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공을 돌렸다.

어린이 법회가 가족간 대화 물꼬 터

한상경 자모회 회장

“자식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는 부모도 가게 돼 있다. 사찰은 아이들이 찾는 곳이어야 한다.”

한상경 자모회 회장(사진이) 화계사를 찾게 된 이유는 어린이 법회가 있어서였다. 한 회장의 작은 아이는 어린이 법회에서, 큰 아이는 학생법회에서 남편은 일반 법회에서 참석한다. 한 회장은 자모회 활동을 통해 신생활을 이어간다. 한상경 회장은 자모회 회장을 하면서 신생활은 물론 가족 간 단절된 대화의 물꼬도 트게 됐다.

“일요일이면 가족 모두 절에 와 신생활을 하게 되면서 함께 정서적 교류가 원만해졌다. 아이들이 일요일만큼은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큰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주말에는 학원을 보내면서 가족과 거의 대화가 없어지고, 동떨어지기 시



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다시 쾌활해지는 것 같다.”

어린이 법회에 어머니들이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어머니들은 함께 불교대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신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교육과 관련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경 회장은 “사찰에서 어린이가 항상 우선이다. 모든 일에 적극 지원해 주고 있어 자모회 입장에서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작했다. 주말에 학원을 간다고 성적이 쑥쑥 오르는 것도 아니었다. 다시 학생 법회에 참석하도록 했더니 가족이 공

놀이 집중 효과는 ‘순간’... 칭찬과 안정감 절실

황학현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단순한 놀이만으로는 어린이 법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힘들다. 칭찬과 포상을 통해 신앙적 자원의 만족감, 성취감을 줘야 한다. 대규모 집단 법회를 하는 시절은 지났다. 법회에서 가족적이고 불교적인, 자비와 사랑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황학현(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단장·사진) 화계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는 조계사에서 20년, 화계사에서 8년 동안 법회를 지도한 베테랑이다. 그는 신앙적 자원의 만족감이 어린이법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학현 법사는 법회에 앞서 3~4분 정도 입장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 황 법사는 아이들도 법회에 놀러오는 것이 아니라 법회를 하는 동안만큼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랜 경험 끝에 알게 됐다. 칭찬과 포상으로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는 법사나 지도사가 오랜 시간 깊은 관심으로 아이들을 관찰해야 가능한 일이다.

레크리에이션 중심으로 진행되는 법회의 집중 효과는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 어린이 법회에서는 전문가나 TV에서처럼 지속적인 변화를 주기 힘들다. 황학현 법사는 “놀이 위주의 법회는 리더십이 있는 한 명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어 법회 중 불필요하게 언



성을 높게 된다”며 “아이들은 칭찬에 더욱 집중하고 안정과 성취감, 만족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화계사 어린이 법회는 매주 40~5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한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안정적이다. 이는 오랜 시간 법사, 교사, 자모회, 사찰이 꾸준한 노력으로 가능했다. 황학현 법사는 “재정적인 문제가 봉착할 때가 많지만 자모회가 탄탄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어느 곳 부럽지 않을 만큼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며 자모회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사찰에서 자모회는 대부분 지도자들과 총동이 있기 마련이다. 20대 젊은 교사의 경우 어머니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화계사는 지도자들이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자모회와 지도자 간 역할을 분명히 나눠 협력구조를 이루고 있다.

황 법사는 지도 교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불교소양과 교사로서의 소양을 두루 갖춘 지도자가 꾸준히 법회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회 지도사를 대학생 1~2학년들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소양도 없을뿐더러 장기간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법회를 이끌기에 역부족이다. 황 법사는 “신심을 가지고, 어린이들과 교류와 관심을 통해 감정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아이디어를 내놓을 의지도 없는 교사가 법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학현 법사는 종단차원의 지속적인 교과개발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어린이법회는 70년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간과 재정면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법문 외에도 시청각적인 요소를 교리와 미술 음악 봉사 체육 등과 접목한 체험활동을 최소한 1년 단위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교과개발이 필요하다.”

이어 황학현 법사는 “종단차원의 어린이·청소년 법회 활성화 프로그램들은 현장을 모르고 진행되는 느낌이다. 왜 어린이 법회가 안 되는지,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법회 활성화에 대한 전략이 없으니 재미가 없는 것이다. 만족과 성취감을 주는 포교원 차원의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법사는 “어린이 법회에서는 어디서든 경험에서 힘든 최고급의 문화 경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운함 느끼면 떠난다” 김진아 어린이 지도교사

김진아 지도교사(울곡중 교사)는 최근 퇴근 후 어머니와 함께 연등과 연꽃을 만들었다. 연등은 판매해 어린이 법회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어린이 법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서 한 잎 한 잎 모아 붙이기 시작한 일이지만 험겨운 시간이기도 했다. 김 지도교사는 “흥겹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위해 보시한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며 밝게 웃었다.

화계사 어린이 법회 지도 5년 차인 김진아 지도교사의 최우선 교육방침은 아이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어린이 법회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을 가장 중요시 한다.

두 번째로는 자모회와 사찰, 어린이 법회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지도를 시작한지 3년 동안은 지도교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했다. 의욕이 앞서기도 했고,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을 때도 많았다. 김진아 교사는 “오랜 시간 어머니들과 지도사, 사찰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 알아서 역할 분담을 하고 일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법회 운영에 안정을 찾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도교사는 초등학교 때 황학현 법사를 조계사 어린이법회에서 만났다. 그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 나처럼 지도교사가 돼 법회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모회 어머니들이 화계사 보화루에서 차갈이용 연등을 만들고 있다.

애들은 돈 내고 머리쓰는 법회 안가

정명은 청소년 지도교사

“가출한 애들이 잠을 재워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부모님과 다툼이 있거나 학교·이성·장래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7년째 청소년 법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명은 지도사(울곡고 교사·사진)는 청소년 법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상담을 꼽았다. 법회는 청소년들이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에 오는 아이들이 모두 모범생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법회에서 특별한 것을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 붙일 곳’이다. 언제든지 스



님을 찾아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회는 돈 안 들고, 재미 있고,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고 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법회에 참석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다. 최근 돈 들고 머리쓰야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학생들은 법당에 와서 만큼은 성직과 돈에 대한 고민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놓친 것 같다.”

불기 2555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정병조 총장외 교직원 일동 -

세상의 중심, **금강대학교**

金剛大學校 GEUMGANG UNIVERSITY

奉 祝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심을 찬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종단의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를 봉대하며, 교구신도회활성화와 취약계층 의료봉사활동, 불교계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해외반출문화재 환수 등 사회공익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명원 김의정 합장

【부설 / 후원기관】 (사)날마다 좋은날 · 불교인재원 · 불교생활의례문화원 · (사)연우 (불교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야 · 연우치과) / (주)연우와 함께

【상설위원회】 문화재환수위원회 · 종교화합위원회 · 미얀마불교대책위원회 · 불교정책기획단 · 국제교류위원회 (WFB(세계불교도우의회) 지역본부)

110-17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건지동 13) Tel. 02)733-7277 Fax. 02)733-7278 www.LBA.or.kr

불교는 만 중생들의 복건이요 사회적기업의 산실입니다.
(사)날마다 좋은날은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합니다.

담당 : 남경우 사무국장 010-3716-8460, banyazz@hanmail.net